청산에 별 하나 띄우고 가을 청량히 노래하다

청량사, 10월 1일 산사음악회

명품 산사음악회의 효시 봉화 청량산 청량사(주지 지현) 산사음악회가 오는 10월 1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청산에 별 하나 띄워놓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2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중 불사로 인해 음악회가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

그 만큼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으로 청량산 가을밤을 채운다. 출연 가수로는 짙은 감성보컬의 소유자 박상민, 가슴 시원한 가창력의 소찬휘, 한국밴드뮤직의 거장 사랑과 평화와 한국불교 대표 소프라노 정율 스님이 출연한다. 지난 2013년 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갖고 다양한 신행활동에 앞장서온 청량사의 둥근소리 합창단, 청량사 어린이 밴드도 함께한다.

주지 지현 스님은 "청량사 하늘 위로 마음의 별 하나 띄워 올리고 여럿이 하나가 돼 기원해보자"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은하수가 될 수 있게 청량사 산사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054) 672-1446

신성민 기자

무더위로 지친 기력 사찰음식으로 보충을

발우공양 가을메뉴 선보여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을 맞아 그간 더위로 지친 기력을 회복하고 가을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햅쌀과 잡곡, 다양한 뿌리채소와 버섯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가을메뉴는 △오곡 단호박죽 △가을채소 잡채 △더덕 배 잣즙 무침 △마 된장 참깨무침 △가을버섯 선물상자 등이 있다. 발우공양은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에 맞춰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메뉴를 준비했다. 메뉴는 코스로 진행되며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을메뉴는 11월까지 제공. 윤호섭 기자



가을버섯 선물상자.



한가위 보름달 소원빌며 신명나게 놀아볼까

추석 연휴 맞아 가볼만한 문화행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때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인 만큼 문화계도 다양한 전시와 문화체험,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국립 박물관에서는 세시풍속과 민속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됐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세시행사를 진행한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놀이 마당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놀았던 거북놀이(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펼쳐진다. 또한 풍년을 축하하는 놀이판으로 꼭두각시놀음 공연도 이뤄진다. 박물관 속 오촌댁 대청마루에서 직접 차례상을 차려 볼 수 있으며, 차례 후에는 추석빔을 곱게 차려 입은 어린이들을 위해 '배씨댕기 머리띠'와 '매듭 장신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그 밖에 '계란 꾸러미 만들기', '배지 만들기' 등 5개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달이 뜨면 놀았던 해남우수영 강강술래 공연을 비롯해서 광명지역에서 전해지는 사물놀이인 광명농악 등 다양한 전통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신나는 음악이 어우러지는 국악 비보잉 등 퓨전 공연을 비롯해 페루의 민속음악 공연도 진행된다. (02)3704-3114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9월 14일~18일까지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을 마련한다. 9월 14~15일, 17~18일에는 어린이 고객들을 위해 인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다이노 타임' 등을 오후 2시와 4시, 하루 두 차례 박물관 강당에서 상영한다.

한가위 다음날인 9월 16일에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임 · 저글링, 비눗방울, 마술 공연이 신라역사관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또한, 연탄불을 이용한 달고나 만들기와 추억의 뽕튀기 행사를 마련하여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부모님 세대의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054)740-7500

국내 최고의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도 추석을 맞아 18일까지 '한가위 좋을씨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가위 전통 세시풍속 체험뿐 아니라 오직 한국민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경주엑스포의 상설공연 '플라잉'의 한 장면. 추석에는 할인 행사로 관객을 만난다.

민속박물관 · 중앙박물관 등
세시풍속 · 민속 문화 체험
국악 · 무형문화재 공연 열려
경주엑스포 공연 '플라잉'도

'성주고사', '송편 빚어보기 체험', '길쌈놀이 대회', '한가위 추수 원정대'는 옛 모습 그대로의 한가위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민속촌 캐릭터와 함께하는 '사또의 풍년잔치'와 '한가위 거북놀이', '길쌈놀이 대회'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내내 민족의 얼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농악놀이, 마상무예, 전통혼례 공연이 진행되며, 한복 착용 방문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1)288-0000

국악과 무형문화재 등을 만날 수 있는 공연도 주목할만 하다.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은 9월 15, 16일 양일간 '한가위 별별잔치'를 오후 8시에 국악원 연희마당에서 개최한다. 공연은 흥겨운 전통 연희와 민요로 꾸며진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연희부의 한국형 퍼레이드 '길놀이', 축복을 비는 '비나리' 등 다채로운 장단으로 공연의 문을 연다. 국악원 민속악단은 추석놀이를 노래한 '팔월가'와 경기민요풍의 신민요 '추석달', 경기민요 '방아타령', '잦은 방아타령'으로 한가위의 풍성함을 노래한다. 또한 줄타기 명인 권인태의 아슬아슬한 재미의 줄타기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02)580-3300

경주엑스포의 스테디셀러 공연 'FLYING(이하 플라잉)'도 추석에 앞서 9월 5일부터 하반기 공연에 들어갔다.

'플라잉'은 2011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6년 차를 맞은 경주의 대표적인 상설공연으로 역사 속 화랑과 도깨비가 시간의 문을 통해 21세기 경주의 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좌충우돌 판타지를 유쾌하게 담아냈다.

추석 연휴와 가을 연휴기간에는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9월 10일부터 18일(일)까지 9일간, 또 가을여행주간인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 대인 · 소인 모두 1만 5000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의 정상가는 대인 3만원, 소인 2만원이다. (054)740-3075

또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도 추석을 맞아 9월 내내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공개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인 9월 10~18일동안 국립미술관 · 4대 고궁 · 종묘 등이 무료개방되며, 경복궁은 '별빛 야행'을 주제로 야간 관람을 실시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미술 '十方三世' 한눈에 조망하다

조계종, 2016 불교미술대전
9월 20일까지 아라아트센터

불교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술대회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9월 7~20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서 열린다. 지난해 공모전에 이어 올해는 기획전을 통해 불교미술 진흥에 일조할 예정이다.

불교미술대전의 세 번째 기획전인 이번 전시회 주제는 '과거천년 현재, 미래천년 현재'다. 불교미술의 수승함이 수천 년을 거쳐 현재로 이어져온 모습, 앞으로 천년을 향한 새로운 이해와 지평을 열어가는 모습을 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불교미술대전 역대 수상작가 및 불교적 사상과 색채를 가진 작가를 대거 초대했다.



서용 작가의 돈황벽화 변상도 회화.

전시회에는 작가 30명의 작품 44점이 선보인다. △조각-청원 스님 · 고석산 · 박명옥 · 양순열 · 정진호 · 한봉석(6인) △회화-도일 · 도현 · 본공 · 성각 스님 · 김경미 · 김영옥 · 박나나 · 서용 · 안상수 · 이연욱 · 양순열(회화중복) · 정성길 · 정향자 · 조해종 · 최문정(15인) △공예-명천 스님 · 곽홍찬 · 김기호 · 김덕환 · 김해자 · 박선경 · 안명선 · 원광식 · 원천수 · 정봉섭(10인) 등이 참여했다.

눈여겨볼만한 작품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목조각장 청원 스님의 관세음보살상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한봉석 목조각장의 목조 당사자상. 청원 스님은 화관 장식 등을 금속과 천연원석으로 세밀하게 제작하고, 천 부분을 칠보채색개금으로 표현해 장엄함을 더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조계종 문화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불교미술대전 세 번째 기획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100년 전 경주의 모습은 어땠을까

동국대 경주캠 박물관, '사진엽서 속 경주'展

일제 강점기 당시 경주와 불국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송은석)은 오는 9월 12일까지 영천역사문화박물관과 공동으로 '100년 전 사진엽서 속의 경주'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특별 전시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사진엽서 중에서 경주의 옛 문화재, 사찰문화재, 민속 사진이 실린 70여점을 대상으로 한다. 혼례, 시골마을, 목재 나르기와 같은 100년 전 생활사가 고스란히 담긴 민속사진과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은해사, 범어사 등 영남 일대의 주요 사찰의 옛 사진, 그리고 표암, 동궁, 월지, 석빙고 등 경주의 주요 유적지 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100년 전 사진엽서 속 불국사의 모습. 일제에 수리되기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100년전 사진엽서 속의 경주' 전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 (054)770-2300 신성민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BBS 불교방송

초/청/법/회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게 하는
생활속의 금강경 대강좌

이 시대의 희유한 선지식이며
불세출의 도인으로 알려진
백성욱 박사 (1897~1981)

금강경 실천수행을 통해, 불행과 행복이 다르지 않고, 빈곤과 풍요가 다르지 않고, 무지 무능이 지혜 능력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 범부가 성자가 되는 이치를 깨치신 금강산 대(大) 도인(道人).

- 1897년 서울에서 출생
- 1910년 정릉 봉국사에서 최하응 대선사를 은사로 출가,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참여.
- 1925년 독일 Würzburg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독일 철학박사 학위 취득
- 1928년 금강산 입산, 10년 수도로 견성오도(見性悟道)
- 1945년 광복 후 건국운동에 참여.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 내무부 장관직을 필두로 한국광업진흥 주식회사 사장 역임
- 1953년 동국대학교 총장 역임
- 1962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금강경 수행도량을 개설하여 인연있는 후학들을 지도
- 1981년 출생하신 바로 그날, 아무 말씀 없이 열반에 드심

백성욱 박사의 제자
김원수 이사장은 누구인가?

- 1943년 경기 연천 출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R.O.T.C. 장교로 군복무후 엘리트 코스를 포기하고, 백성욱 박사 문중으로 4년간 출가하여 금강경 실천수행
- 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29년간 역임
- 퇴임후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금강경 실천도량)을 설립
- 사재를 털어 법당 2채를 법인에 헌납
- 무료급식소를 설립(2004)하여 지금까지 30만명 급식 실시
- 조계종 사회복지부문 〈층무원장상〉 수상(2010)
-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1년간 〈생활속의 금강경〉 매주 특강(2015)
- 매년 〈금강경 연수원 세미나〉 개최
- 출간서적 :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크리스챤과 함께 읽는 금강경』, 『붓다가 되신 예수님』 등

법문내용

-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한 자신의 변화과정
- 부처님 설법의 특징 및 금강경 공부의 당위성
- 금강경 대의를 통한 신해행증
- 금강경 3분에 나타난 진리 및 실천 수행법
- 금강경 4분부터 14분까지 대의 설명
- 금강경을 통한 재앙소멸 소원성취 원리 소개
- 금강경을 통한 획기적인 인성교육 및 인재(CEO) 양성 대안 제시
- 금강경을 통한 불법 진흥 및 출가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 '금강경 교육모델로 삼으면 하버드大 능가한다'

신청안내

- 강 사 : 김원수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 일 자 : 2016년 9월 5일(월) ~ 11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12강좌)
- 시 간 : 저녁 7시 ~ 8시 30분
- 장 소 : BBS 불교방송 3층 다보원 법당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수 강 료 : 6만원 (3개월분)
- 납부계좌 : KEB 하나은행 266-890010-35104 예금주 : (재단법인)대한불교진흥원
- 접수기간 : 8월 20일 ~ 9월 30일
- 문의전화 : (02) 707-1072
- 담 당 :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

| 주최 |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BBS 불교방송